

## 세 • 번 • 상 • 식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갖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된다.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건강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여 오랫동안 유통되어 왔는데 당국에서는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올바른 정보제공과 고부가가치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육성을 입법 취지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 공포되고, 뒤이어 2004년 01월 31일 본격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종전의 건강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이 생산·유통되던 당시에는 이들 품목이 『식품위생법』에서 관리 규제되다보니 허위 과대광고가 난무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과대선전이나 불량제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품위생법 시절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흔히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에 관한 질문의 핵심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규

의 명칭인 ‘……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보듯이 약품이 아닌 식품인 것은 확실하다. 그



러나 식품과 의약품을 양쪽에 대칭으로 진열하고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의 위치를 찾는다면 식품과 위약품의 딱 중간은 아니더라도 식품 쪽에서 위약품 위치 쪽으로 약간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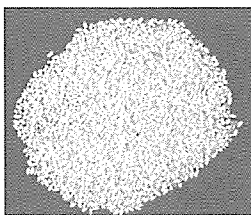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에 딱 들어맞는 용어는 없어도 유사한 용어는 등장하고 있다. 해설서 2106-(16)호에서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 과일 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 화합물을 첨가 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 또는 3004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대목이 바로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것이며 후반부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의약품인 것이다.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를 ‘food supplements’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되는 제품을 미국에서는 'Dietary Supplement', 캐나다에서는 'Natural Health Product' 호주에서는 'Complementary Medicine', 일본에서는 '보 건기능식품' (특정보건용 식품+영양기능식품) 등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는 (1)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식약청장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기능성 원료 포함)으로 한정하고 새로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받는 후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2106호에 분류되지만 성분에 따라 따로 분류될 수도 있다.(예 : 클로렐라 2102호, 레시틴 2923호)

## 찰쌀(glutinous rice)



찰밥이나 찰떡의 원료가 되는 쌀로 차진 기운이 높고, 멥쌀보다 소화가 잘 된다. 찰떡·인절미·

경단·단자 등 여러 가지 떡을 만들며, 찰밥·약식·식혜·술·고추장 등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찰쌀은 멥쌀과 대응되는 말로, 나미 또는 점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식용되는 멥쌀과 다른 것은 점도가 높고 외관상으로도 백색이면서 보드랍게 느껴지는 것이다. 보통 밥을 짓는 멥

쌀은 배젖이 반투명한데, 찰쌀은 유백색으로 불투명하므로 구별할 수 있다. 또 찰쌀의 녹말은 대부분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요오드 반응에 적갈색을 띠기 때문에 구별되며, 밥을 지어보면 찰쌀이 멥쌀보다 찰기가 훨씬 많으므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벼학자 텡잉(丁穎)은 찰기가 있는 메벼가 중국 고대의 황하유역에서 재배되고 있었으며, 후한 초기에 이르러 더욱 찰기가 많은 찰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메벼를 가리키는 글자는 진나라 때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벼의 1차 전파는 찰벼이고, 메벼는 후한에서 수나라 사이에 널리 먹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찰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찰쌀의 녹말이 아밀로펙틴(amylopectin)만으로 이루어지고 멥쌀은 아밀로스(amylose) 20%, 아밀로펙틴 80%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오드반응에는 멥쌀이 청자색을 띠고 찰쌀은 적색을 띤다.

쌀 이외에 차·메의 차이가 생기는 곡물로는 조·기장 등이 있다. 울무는 재배종은 모두 찰기가 있으나 야생종인 염주는 메질뿐이다. 밀·호밀·귀리에는 차·메의 구별이 없고, 신대륙이 원산지인 옥수수에는 아시아에 건너와서 중국 남쪽의 산지에서 찰옥수수가 육성되었다. 곡물의 차·메의 구별이 생긴 것은 동아시아의 난온대에서다.

과학적으로는 물론 멥쌀과 성분상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의학상으로는 찰쌀이 갖고 있는 뜻과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찰쌀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그 성질이 따뜻하고 달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위장이 약해서 늘 속이 거북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볶아서 먹으면 설사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힘없이 소변을 자주 보는 노인병 증상이 개선된다. 위염 때문에 늘 속이 거북해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찹쌀죽을 자주 먹으면 소화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찹쌀로 밥을 하고 나서 땀을 들일 때 생기는 진한 미음은 특히 소음인 체질의 위장병 환자들에게 좋다. 불면증에는 숙면제의 구실도 하고, 마른 가래가 꼭 차 있을 때에는 운담지제로도 응용되고,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 모유대용도 되고, 산모가 마셔서 젖을 늘리기도 한다.

그러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찹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찹쌀은 기질적으로 양인보다는 음인에게 잘 맞는 식품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찹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본품은 찹쌀가루를 썬서 성형·건조한 펠렛상의 것으로 유과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다.

**【세번정정이유】** 본품은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는 HSK 1904.90-9000호로 신고하였다.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콘플레이크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과 기타 가공한 곡물(다른 호에 계기 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는데 본품은 팽창 또는 볶은 것이 아니고,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이 아니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다.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제11류의 곡분, 분쇄물, 조분을 말함)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품은 제11류의 찹쌀가루로 만든 유과(제1905호에 분류됨)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쌀가루의 베이커리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20-1000호로 정정 분류하게 되었다.

## 통 · 관 · 뉴 · 스

### ▶ 인천항 11월 중순경 역대 최대 신기록 달성

11월 중순경 인천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 신기록을 달성한다.

인천항만공사는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총 11만 8,414TEU를 기록, 월 11만 TEU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11월 중순쯤 최종 실적 11만 8,666TEU

를 넘어 역대 최대 컨테이너 처리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밝혔다.

10월 물동량 집계를 분석하면, 10월은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화물 증가에 힘입어 역대 월간 처리 물량 3위를 기록했고, 누계 실적으로는 총 110만 4,927TEU를 기록, 전년 대비 20.3%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1~10월 누계 기준으로 108,674천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7%를 증가했다.

한편, 항만업계로부터 추가 신고를 받아 9월 실적을 재집계한 결과 총 12만1,453TEU를 처리, 사상 처음으로 월간 컨테이너 물량이 12만 TEU를 넘었다.

#### ▶ 美, 외국약품 최소한의 가격 수준 보장 요구

미국은 한·미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관련해 외국산 의약품이 한국 시장에서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1.12~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 한·미간 협상이 보다 생산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됐는데, 미국은 외국산 의약품이 한국 진입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신약 가격 결정시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보장하고,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한 방안」을 연내 시행할 것을 밝히며,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기준(GMP)·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5차 협상은 12월중에 열릴 예정이며,

한·미 양국은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진행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의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 아시아횡단철도망(TAR) 정부간 협정 체결돼

11.10일 아시아횡단철도망(TAR) 정부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해상운송 위주의 아시아-유럽간 물류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륙간 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도라산-부산 구간 497.4km, 대전-목포 252.6km, 익산-광양항 179.0km 등 총 929km의 기존 철도 노선을 아시아횡단철도망 국제철도 노선으로 반영, 총 81,000km의 아시아횡단철도망을 구성하는 아시아역내 및 인접국가 28개국을 협정 당사국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8개국 이상 정부가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가입하게 되면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체결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60년대부터 국가간 통관절차 간소화, 철도운임과 운행 조건 등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 단계를 거쳐 아시아-유럽간 철도망 구축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협정체결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아시아횡단철도망을 구성하는 국제철도로 공식화돼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며,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기반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크게 증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명식에 참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UN ESCAP 및 러시아·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협정에 가입하

도록 유도하고, 핵실험 등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 철도개통도 국제정세를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R 협정 28개 예정당사국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북한·그루지아·인도·인도네시아·이란·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네팔·파키스탄·대한민국·러시아·싱가폴·스리랑카·타지키스탄·태국·터키·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이다

▶ **한국 철도현대화와 나이지리아 생산유전 빅딜**

한국의 철도현대화 기술과 나이지리아의 생산유전을 서로 주고 받는 윈-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OPEC 의장이자 나이지리아 석유장관인 다우코루 장관과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 사업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협력약정(MOU)'을 11. 6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체결했다.

이번 MOU는 나이지리아의 철도현대화 사업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은 '유전개발과 발전플랜트 연계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MOU의 기본 골격은 한국측이 나이지리아 2단계 철도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의 상업차관 형태로 제공하며, 나이지리아측은 이를 대가로 현재 생산 중인 유전 지분을 한국측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부 유

전지대인 니제르 델타의 중심도시인 포트하코트(PortHarcourt)에서 수도인 아부자(Abuja)를 거쳐서 북부의 마이두그리(Maiduguri)까지 총연장 약 1,500km 노선이다.

또한 동 사업에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컨소시움은 사업비중 일부를 장기저리의 상업 차관 형태로 제공하는 대신 나이지리아는 낮은 금리의 차관제공으로 인한 한국컨소시움의 위험을 hedging(회피)하기 위해 생산유전의 일정지분을 한국컨소시움에 제공하게 되며, 구체적인 생산유전 규모 및 상업차관의 규모는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유전과 철도현대화사업 빅딜에 의한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과 나이지리아의 자원을 서로 주고, 받는 윈-윈 프로젝트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 왔던 생산유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으로 검사시간 4시간 → 10분으로 단축**

테러물품 등 국민생활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검색에 컨테이너검색기가 도입됨에 따라, 컨테이너 1개당 4~5시간 소요된 검사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은 40만원에서 0원으로 크게 절감됐다. 이로써,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물품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속·통관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1.15일,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부산신항의 북컨테이너 부두에서 컨테이너검색기의 개통식을 갖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검색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설치한 컨테이너검색기는 신속한 통관과 아울러, 투과력이 탁월하고 양방향(수평·수직) 투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총기류 등 테러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적돼 반입하는 농수산물 밀수를 보다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02년 10월 이후 컨테이너검색기를 통해 적발된 밀수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범칙금액 1,379억원에 달하는 총 90건의 밀수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품목은 건고추 449톤, 참깨 83톤, 검은쌀 24톤, 인삼류 110톤 등 농산물과 가까 로렉스 시계 등 21,389개, 비아그라 32만정, 금괴 54kg이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에 의해 내장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검색장비로 미국·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테러물품과 밀수품을 적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02년부터 총 8대(부산 3대, 인천 2대, 평택·광양·울산 각 1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컨테이너 도입에 이어 11.22일에는 군산항에서 10번째 컨테이너검색기의 개통식을 할 예정이다.

▶ **아리스토토크산 및 유해 중금속 함유 의약품 수입금지**

신장이상 및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아리스토토크산 함유제제 및 함유 한약(청목향, 마두령)과 신장이상 및 신경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유해 중금속 함유 의약품이 수입금지된다.

관세청은 동 물품이 국내에 의약품으로 허가된 바 없으나, 여행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수입 통

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2일 홍콩 건강국(DH, Department of Health)에 의하면, 중국 廣州白雲山制藥廠에서 생산된 "JIE JIE PILLS"에 aristolochil acid가 함유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싱가포르 건강과학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에서는 지난 8.28일 인도 Santhigirl Ayurveda & Siddha Vaidyasala에서 생산된 "Endopile Capsule"에 유해중금속인 납과 수은이 다량 함유돼 있어, 복통·구토·혈을 동반한 설사·신장 이상 및 신경 정신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스토토크산 함유제제, 아리스토토크산 함유 한약(청목향, 마두령) 및 그 제제'는 '05.6.1일 이후 국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 **자동차 수입신고시 Option사항 기재해야**

자동차의 수입신고시 기본사양 외에 추가되는 Option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동차가 동일한 모델이더라도 기본 사양 외에 추가되는 Option에 따라 수입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과세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Option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세관에게는 수입통관시 자동차 Option사항이 있는 여부에 대한 통관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수입신고시 선택사양 기재 방법은 차명·차대번호·배기량·제작년도 등 주요특성순으로 기재하고, Option사항을 기본사양의 자동차 가격과 분리해 상세 기재하면 된다. 또한, Destination과 Delivery 등 수입자가 지급한 가산요소는 가산금액란에 기재하면 된다. ㉟